

상업·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한다

무분별한 고층화 규제
스카이라인 체계적 관리
19일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계획 기준에 따른다. 시는 13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광주시 건축 주택과 등에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오는 19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한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5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제한한 건축법의 건축물의 높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무분별한 고층화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기본 원칙은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 전면도로에 접하는 양쪽 2개 필지의 대지 깊이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개공지 확보 등 공공성 확보 시 최대 1.2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준높이를 더 올려주고, 경관이나 디자인을 아

름답게 하거나 환경성 공공어메니티 등을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9년 4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다운 거리와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게 됐다"며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전직원 설문조사
성차별·성희롱 실태 파악



세계수영대회 성공 기원 고싸움놀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고싸움놀이 축제가 오는 25일 옛 전남도청 앞 일원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11월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고싸움놀이 축제 장면.

광주시 인권읍부조은은 13일부터 23일까지 시 전 직원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차별·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 시는 실효성 있는 설문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여성인권 전문가, 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 등 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설문조사 방향, 설문문항 등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었다. 설문내용은 조직 내 성차별 인식 및 피해경험, 성희롱 발생장소 및 대처방법, 2차 피해 유형, 성차별·성희롱사건 발생 시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여부 및 여성인권보호관의 역할 등 11개 문항이다. 시는 설문 결과를 분석한 후 내년 초 성차별·성희롱 실태 공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성차별·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에너지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 줄이자 빛고을건강타운 '월화수목금토일 착한 에너지' 행사

광주복지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문혜옥)은 12일 빛고을노인 건강타운에서 2018년 에너지사용 의식개선 캠페인 '월화수목금토일 착한 에너지!'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겨울철 에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 에너지 절약, 효율적 이용,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문화 정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청, 남구정, 한국에너지공단광주전남본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함께 했으며, 행사진행은 광주에코바이크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건강과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으로 내복입기 등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내복을 입고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무릎담요 100장을 나눠주고, 나머지 회원들에게도 수면양말 200개를 나눠드렸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혜옥본부장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누구보다 어르신들이 먼저 전기를 아끼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다"며 "내복과 스웨터 입기, 뽀뽀이 문풍지 달기, 실내적정온도 지키기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본 마스터즈 수영협회, 세계수영대회 답사 광주 방문

일본 마스터즈 수영협회 관계자들이 내년 광주마스터즈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전 답사차 11일 광주를 방문해 13일까지 대회 시설을 둘러보고 귀국했다. 13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일본 마스터즈 수영협회 토쿠라 도시오 사무이사과 요시 오사키 경기담당자가 조직위를 방문, 마스터즈수영대회가 열리는 선수촌과 경기장 현장 등을 둘러봤다. 일본 협회 관계자들은 12일 선수촌과 여수 오픈워터수영 경기장을 방문해 시설과 경기코스를 둘러보았고, 13일에는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과 염주체육관을 방문해 내년 광주 대회에 참가할 자국 마스터즈 선수단을 위한 경기운영 방법 등에 대해 답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조직위는 3100여개 수영 클럽과 4만50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는 일본의 참가에 공을 들여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시 농기센터 '옹기종기 장 가공 교실' 심화반 운영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전통 음식문화 계승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발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옹기종기 장 가공 교실' 심화반을 운영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심화반은 11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광산구 용곡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와 전남 영암에 위치한 매주 가공 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으로 된장과 간장, 고추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매주를 가공하는 기술을 익힐 예정이다. 교육 참가자는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16일까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청년들의 시정 아이디어 공모 합니다

광주시 23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매년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는 민선7기 첫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참신하고 창의적인 청년층으로 정했다. 공모 분야는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 ▲시정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등 2개다. 광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과 시정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전국 청년과 대학생은 23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제안서를 다운 받아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공모평가는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경우 창의성·실시가능성·효율성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정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은 창의성·실시가능성·계속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공모에 제출된 제안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10개를 선정하게 되며, 12월에 개최되는 '청년·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컨퍼런스' 행사에서 PT발표를 통해 등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은 대상 1개 팀 200만원, 금상 2개 팀 각 150만원, 은상 3개 팀 각 100만원, 동상 4개 팀 각 50만원 등 총 10개 팀에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등급 및 수상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을철 전염병 주의보

탈진드기 전월비 10배 늘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이 잦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해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쯔쯔가무시증 등 주요 발열성질환에 대한 예방 대책의 하나로, 지역 야산과 들뜰 등 자연환경에서 쯔쯔가무시증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탈진드기에 대한 분포와 병원체를 연중 분석하고 있다. 올해 조사결과를 보면,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탈진드기 수는 9월 9마리, 10월 13마리, 11월 167마리로 전월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환자 발생 자료에 따르면, 예년 같은 시기보다는 줄었지만, 10월과 11월에 증가하는 쯔쯔가무시증의 역학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은 2016년 2083명(1만 1105명), 2017년 1950명(1만528명)이 발생했고 올해는 11월7일 기준 862명으로 전국 4563명의 19%에 달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야생물쥐에 기생하는 탈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 감염되며, 초기에는 감기증상과 유사하게 발열, 오한, 근육통 및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탈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가 가피가 형성되는 특징도 있지만 최근에는 가피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실험실검사를 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 일로읍, 토지 6000평, 15억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8~10M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타운하우스 최적
 - ✓ 남악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몽탄~일로간 고속도로근접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 급매 - 15억(평당 25만원)
- 문의. 010-6834-7400